



부름받다.

11월 16일

유타주, 조던리버 신전 헌납

1982년

3월 18일

새로운 세 가지 교회 집행 평의회 조직 :  
선교사 집행 평의회, 신권 집행 평의회, 신  
전 및 계보 집행 평의회.

3월 31일

아이다호주 보이스, 콜로라도주 덴버, 에  
쿠아도르 파이어킬, 대만 대북의 신전 건  
립 계획 발표

4월 2일

형제들의 복음 선교사 봉사 기간 단축

10월 9일

동독 프라이베르그 신전 건립 계획 발표

1983년

12월 2일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의 죽음으로 인한  
대관장단의 재조직 : 제1보좌 매리온 지롬  
니, 제2보좌 고든 비 힝클리

6월 1일

애틀랜타 조오지아 신전 헌납

8월 4일

아피아 웨스턴 사모아 신전 헌납

8월 9일

누칼로파 통가 신전 헌납

9월 15일

산티아고 칠레 신전 헌납

10월 28일

파피에이테이 타히티 신전 헌납

12월 2일

멕시코시티 신전 헌납

\*

연차 대회를 마치면서 솔트레이크 테버내클을 떠나는 킴볼 대관장 부처



#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얻도록 도움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김볼 대관장님의 지시에 따라  
전에 그분이 진하신 말씀 가운데서 발췌함.

는 언제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좋아하며 그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길을 잃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관한 두 가지 비유를 특히 좋아합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제시하고 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하신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과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

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쯤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

빠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 : 2-7)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주님의 이 비유는 우리가 곤경에 처한 자들, 특히 이 경우는 우리에게서 떠나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 내어 구해 주어야 할 사랑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주님께서서는 동일한 주제의 다른 비유를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로 이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 : 8-10)

교회의 형제 자매인 우리의 책임을 길 잃은 자들에게 잃은 길을 찾아 주며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잃은 보화를 다시 찾아 주는 것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모든 회원은 동료 회원을 굳게 할 책임이 있다고 명백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 : 32)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돌이킨 후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굳게 하십시오.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자신이 굶주리는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그들의 영혼에 안전을 가져다 주는 강한 기초가 되며, 그

들의 마음에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적인 진리와 원리는 얼마든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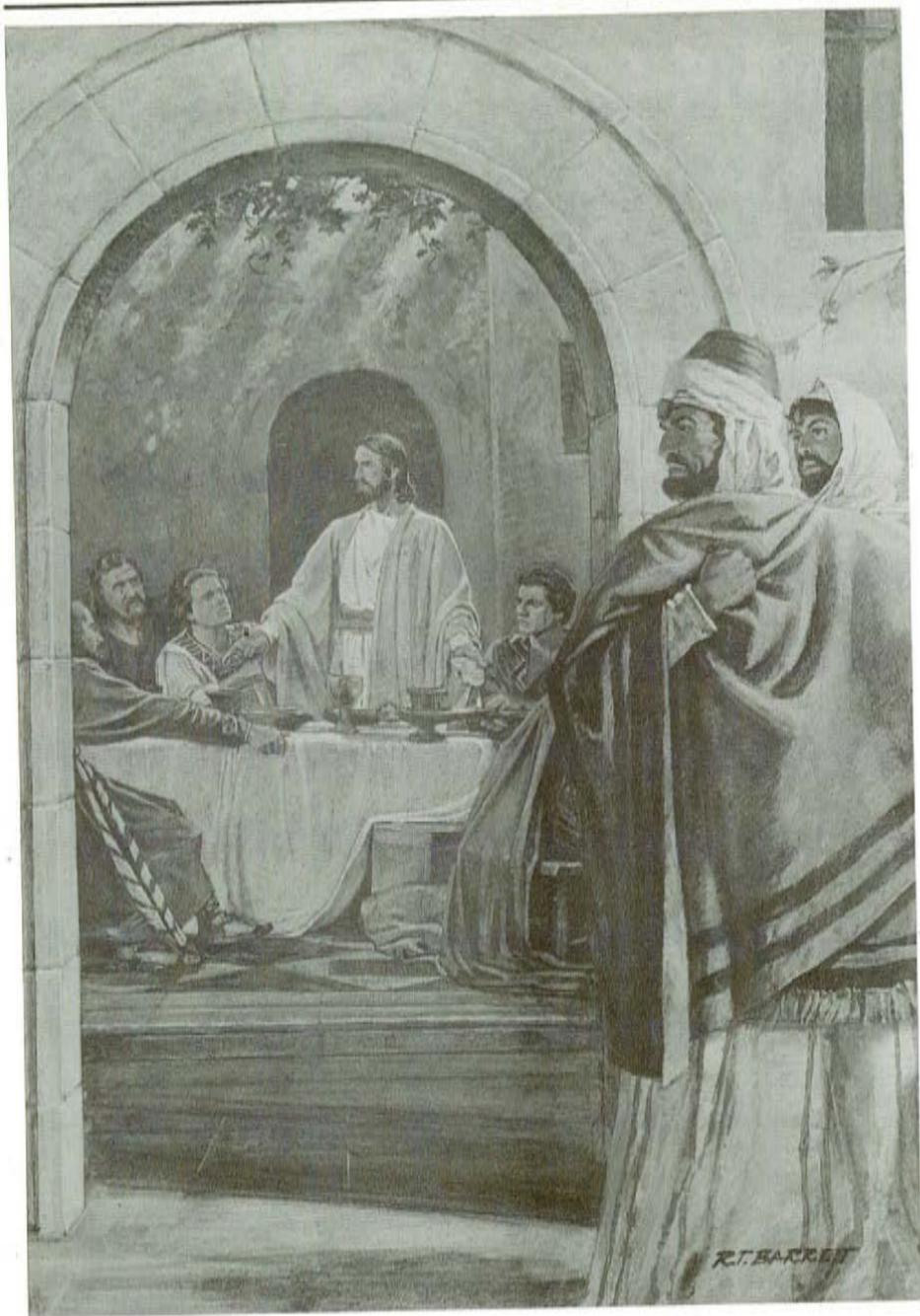
결혼을 하면 생활에 질서를 세우고 신전에 가서 영원한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한 한 부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끔찍히 사랑하였으며 신권의 인봉의 권세로 맺어진 결혼 성약의 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일에 열심히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부는 지역 사회의 일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의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아내인 제니는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모성으로 인하여 그녀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녀의 가족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녀는 더욱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사려깊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러 번 남편에게 이렇게 졸라댔습니다. “감동님에게 가서 신전 추천서를 받으시다.” 그러나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녀의 안식일 예배와 안식일 관심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일요일에 남편과 함께 지내는 것이 보다 화평스럽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교회 일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자녀들이 십대가 되었을 때 그들 역시 부모들이 즐기는 근심없고 여유있는 활동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슬픈날, 이 모든 것이 끝장나 버렸습니다. 그때 그 가족은 일요일 피크닉과 활동을 즐기고 있었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아내 제니와 한 자녀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이 남자는 생



이란 한정된 것이며 외로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의 나날은 공허했고 삶은 고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과 남아 있는 자녀들에게 몰두해 보았으나 그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언제나 그 동반자인 제니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위안도 화평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를 자신에 영원히 인봉시킬 수 있는 신권 인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눈물과 큰 고통과 근심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대개 다른 꿈들은 낮 동안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 꿈은 하루 종일 그에게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넓고 확트인 문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생소한 곳에 있는 듯했습니다. 그곳의 중심 인물은 한 여인과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갑자기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뜨거운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전보다 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쁘게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 문을 통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움직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더욱 노력했을 때 그 커다란 문이 닫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그의 아내는 자신이 급히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시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랑

하는 남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그 문이 닫혀지고 있음을 알고는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는 잠을 깨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의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영생을 받는 자들의 완전한 축복과 이것에 포함된 모든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가 지닌 모든 것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날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그는 생의 최대의 기회의 하나를 상실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관심이 그를 엄습해 와서 그의 의로운 소망을 질식시켜 죽게 하기 전에 급히 행동하면 아직 기회는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의로운 동기의 힘을 아셨으며 우리가 생의 목적과 장막 지편의 상태에 관한 진리를 알 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권세도 알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곰곰히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관심 있는 자의 마음속에 그분의 메시지가 잇을 수 없는 감명을 줄 수 있도록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잠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 44-46)

제니의 남편은 이 비유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니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을 위해서라면 아마 그는 갖고 있는 전재산이라도 다 바쳤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전과 그밖의 교회 축복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주님의 약속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을 얻기 위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돕고자 함에 있어 나는 먼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나는 내가 참으로 돕기를 원했던 한 청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도 있었습니다. “한가한 시간에 형제님은 무엇을 합니까? 어떤 책을 읽습니까? 형제님은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그가 한 대답은 그가 쇠막대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대부분 불신자 친구들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그친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를 마친 후 몇 번이나 신약전서를 읽었습니까?” 물론경은 몇 번 읽었습니까?” 그는 오랫동안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영이 왜 죽어 가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일조를 바치지 않았으면서도 왜 하늘의 문이 그에게 닫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너무 바빠서 교회와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너무 바빠서 가족 기도도 할 수 없고 다른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가정의 밤을 가질 수 없고 너무나 피곤하여 경전을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생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불확실한 것들 가운데서 그들을 지탱하게 해주는, 매일 그리고 매주 주어지는 만나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노력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과 그리고 영원히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그의 종들에게 주신 다음과 같은 주님의 권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7:21, 한역 성경에는 없음)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순간에 준

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음식과 기도에 대한 주님의 충고를 잘 따를 수 있을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되 어쩌면 그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면, 동일한 충고를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돕는 자라면 그들의 음식과 기도에서 우리의 음식과 기도를 더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계심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앵마를 기억하십니까?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개인이 그들의 소망에 충실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물론 그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축복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전의 약속도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든지 멀어지지 아니하나” (고린도전서 13:8) 결코! 사랑은 충분히 주어지기만 한다면 개인이나 우리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개개인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과 같이, 나는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영과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접근을 한다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자 곧 재활동화 되지 않을 자가 없다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고 기쁘게 복음 원리를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축복이 우리의 노력과 함께 하실 것임을 압니다.

이 세상의 수백만의 사람들과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신권의 축복과 이 교회

의 축복과 그리고 교회가 가져다 주는 이익을 이해할 때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와 비회원과 비활동 회원들이 자신들의 생활에서 복음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일깨워 주어야 하는 부름을 받았읍니다.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30) 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17)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니파이처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니파이일서 3:7)라고.

신권 정권회의 가정 복음 교육 교사,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 어디서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회원들로 하여금 손을 뻗어 사랑과 영감으로써 궁핍한 자들을 돕게 하는 데 요구되어지는 의로운 일을 행하도록 합시다.

지극히 참나적인 흥미나 열성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이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뛰뜨르게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자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 주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영이 임재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 “온유와 거짓없는 사랑”으로 배우자에게 선교사가 됨

물리 에이치 소렌슨

남편이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로 지지받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갔을 때 나에게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복음에 관해 간증하면서, 그는 또한 아내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나의 남편이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아내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은 포스터를 만들어 들 것을 발견했을 때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가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선언했던 때가 그리 오래 전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성찬식에서 영적 말씀을 하라고 부탁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을거야, 왜냐하면 내가 결코 이야기를 하지 않을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야.” 그는 이제 스테이크 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연사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내 남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연기술에 열중하고 있으므로 나를 연극에 개

입하도록 설득할 생각은 마십시오. 나는 한 사람의 배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스테이크 연극에서 주역을 맡아 훌륭히 해냈습니다.

“나는 독서가가 아니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충실히 경전을 읽고 매일 아침 모두에게 경전을 가르칩니다.

한번은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 후로 그는 여러 번 신권의 권능으로 우리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남편은 정녕 변화되었습니다! 16년 전 그는 수련 장로였습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남편에게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매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며 아내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아내에게 선교사

가 되어야 할 남편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 여러분을 여러 번 실망시켰을 경우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향유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그것을 마음껏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음을 이해시키려는 그녀의 소망은 때때로 거의 절망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큰 기쁨을 얻었을 경우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매우 미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편은 한 가정으로서, 곧 인도를 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 인도해야 할 자입니다. 아내는 결혼에서 동등한 동반자가 되지만 남편의 지도력의 역할을 지지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활동적이 아니거나 교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 아내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아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가정의 밤을 갖고 그 외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녀는 종종 내적인 갈등을 갖게 되고 남편과의 공공연한 충돌까지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에 단합과 영성을 가져 오는 그녀의 목적은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한 여성이 남편에게 선교사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 어디로 가서 인도와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경전을 연구함으로써 훌륭한 열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내가 천국 회의와 거기에서 논의된 것에 관해 배웠을 때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강압으로 하는 데 게신 아버지의 원칙에 순종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 만드신 내가 이를 행하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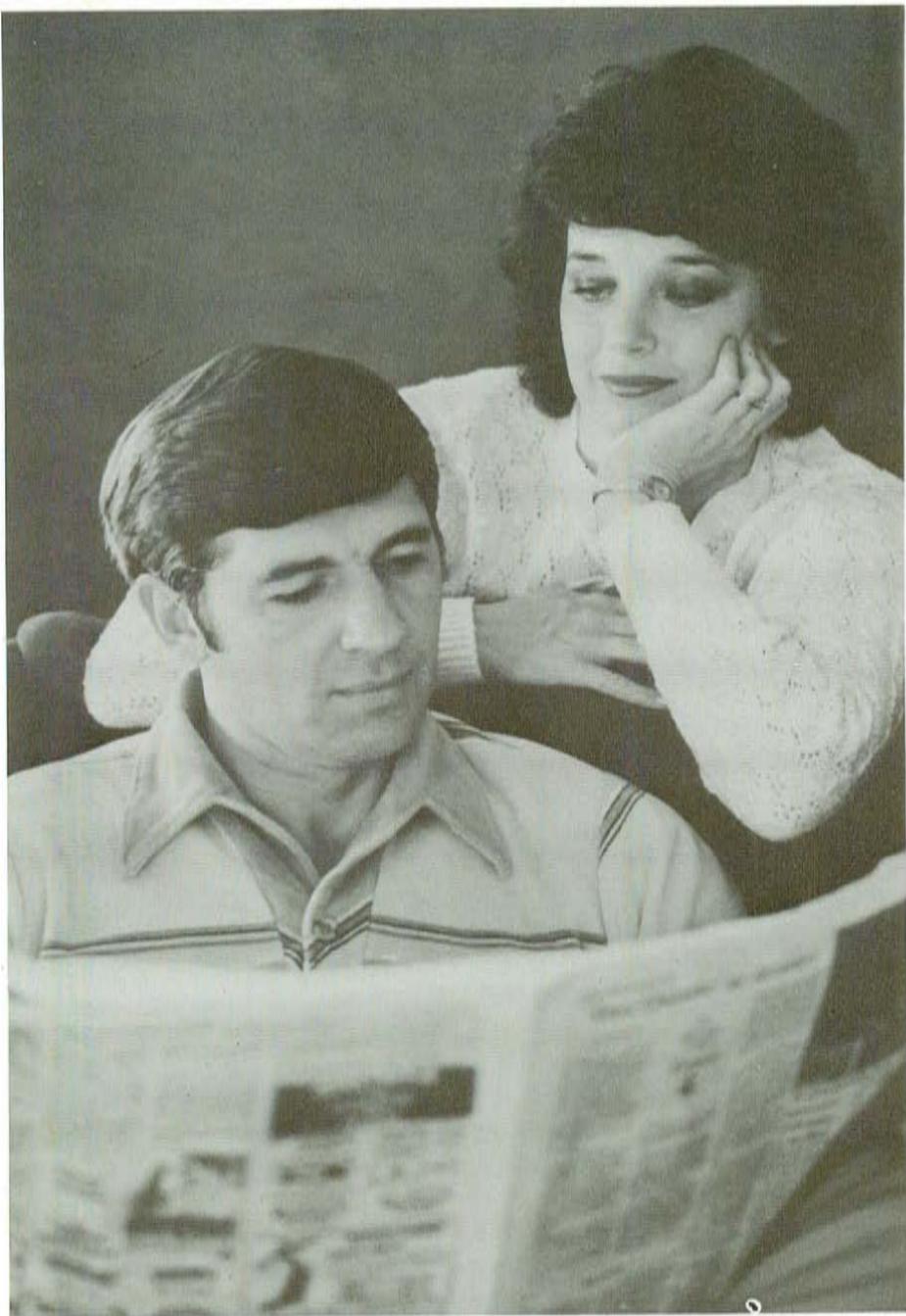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미 부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그분은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능케 하셨으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서 4:1-4 참조)

이러한 경전의 기사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복음을 받아들일도록 애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스스로 진리가 옳고 훌륭하며 최대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자유스러운 상황에서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참된 방법이 교리와 성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교성 121 : 42)

이러한 자질 곧 주님의 선득의 방법은 우리가 그분의 영의 은사를 얻도록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우리의 본성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에게 빛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보다 훌륭한 관계를 갖기 위해 아내들에게 사랑과 양선과 온유를 지니고 있는 척하라는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식 때문에 그들은 실은 위선자를 비난하셨던 구세주를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비판하고 신앙을 잃게 되는 인간의 속성을 몰아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으로써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권세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 곧 절절함이나 남의 감정을 해치는 성벽을 어린 아이와 같이 다시 부드러울 것으로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편 51:10)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더 잘 볼 수 있고 우리의 배우자 안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질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 준 자들을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그들의 행동이 그들을 사랑하기 어렵게 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모로나이사 7:48)

성령의 도움으로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품을 갖게 된 한 여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나의

남편이 내가 원하는 일을 수행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절망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훌륭한 일조차 고맙게 여기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율법의 문자에 너무나 억매어 있었으므로 사랑, 인내, 용서, 신앙과 같은 보다 중요한 일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조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때 나는 내 자신이 잘못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가 전혀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태도가 변화될 것을 간구했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점차적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느끼면 느낄수록 비판하려는 강한 느낌은 사라져 갔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전에 그를 너그럽게 보아 주었던 그러한 방법으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자녀들에 대한 그의 인내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용과 유쾌한 성품과 그의 손으로 일하는 방법—다른 사람이 만나 절 절리는 일을 한 시간 만에 성취할 수 있었던 것 등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는 여전히 그가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기를 원하면서도 그가 자신의 분야에서 성장하도록 기다리는 아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마음껏 성장하기 위해서 그가 필요로 하는 사랑의 모법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가 나의 행동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로 놀랍고 아름다우며, 훌륭한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사랑으로 영향을 주려는 우리의 시도를 좌절시키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가장 강한 도구가



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루며 강제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그는 우리가 자신의 영적 영양이 되는 것 곧 기도, 금식, 연구를 게을리하고 참을성있게 하도록 할 것이며, 우리를 바리새인처럼 관습이나 원리의 망각 때문에 다루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밤을 갖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강압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의 밤을 갖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활동적이거나 비회원의 남편을 가진 아내는 행해지지 않는 율법의 일부를 기꺼이 내버려 둔 채 그들의 남편이 그것을 인도하도록 꾸준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율법의 더 중한바”(마태복음 23:23) 조차 행하지 않고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은사이며 그 은사는 아내가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설교나 심판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하여” 그의 남편에게 “선행을 하게”하기 때문입니다. (모사이야서 5:2 참조)

우리 모두는 어떤 모임의 영에 사로잡혀 온화함과 사랑의 느낌을 가졌던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떠들어 대면서 우리의 모임 진행을 방해했던 어린이들이 이제는 천사와 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상호부조회를 마친 후, 눈물을 글썽거리며 나에게 다가와서는 “저는 그분을 포기해야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년 정도 지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보다도 덜 활동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실망시켰다는 느낌이 듭니다. 남편이 결코 아무런 변

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까?”

나는 그분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를 간구하고 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매님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자매님이 남편과의 관계를 위한 그와 같은 소망을 느꼈던 일년 전처럼 최근에도 자매님 자신의 영적 영양분에 몰두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자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연구를 위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의 남편과 우리들의 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을 때와 내가 비판적으로 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 자신의 영이 굶주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부에서 부드러운 영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새로운 신앙과 사랑으로 남편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수주일 후에, 이 자매는 나에게 전화하여 영적 양식의 프로그램에 그녀 자신이 재다침함으로써 그녀는 다시 한 번 남편과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어서 전에는 그것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매주 우리가 구세주를 기억하여 떡과 물을 마실 때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분의 영으로서 배우자들은 서로에게 참으로 도움과 힘이 되는 최상의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질문 :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대답 : 아더알 배릿 브리감 영 대학교 인문학 부교수

**우**리는 구세주의 재림에 대하여 완전하고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천년 통치를 일으켜 세우시는 전조로써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것으로 밝혀 주셨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바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에 앞서 주께서 나타나심이 있으리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 방문은 이미 행해졌습니다. 이 예비 방문의 첫번째는 기록한 숲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또다시 나타나신 것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신진 현 남식이 있던 후인, 1836년 4월 3일이었습니다. (교성 110:1-10 참조)

구세주께서 다음에 나타나시게 되어 있는 것은 미주리주의 아담—온다이—아반에서 (교성 78:15 참조) 신권 지도자들이 모일 때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의 모든 세대가 참여하게 될 이 대회에 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상 아담, 곧 미가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자녀들을 한데 모아 회의를 열고, 인자의 오심을 대비해서 자녀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아담)는 인류의 아버지, 온 인간의 영을 다스리는 자이며, 열쇠를 가진 모든 자가 이 큰 회의에서 그 앞에 설 것입니다. 인자가 그의 앞에 서며, 그에게 영광과 통치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 아담이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그리스도께 돌려드릴 것인즉 이 직분은 우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위는 인류의 머리로 존속될 것입니다.”(에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53 페이지)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다시금 이 세상의 합당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권세를 발휘하는 실제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권세는 에루살렘 전쟁시에 오래 기다려 온 유대 민족의 메시야로 오실 때에 분명히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에 관하여 에언자 스가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에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에루살렘 앞 골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스가랴 14:2-4)

유대인들이 이 골짜기로 피신하고 주님의 분노가 사악한 자들에게 내려진 후, 유대인 지도자들은 주님의 몸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표적을 알아보게 되고, 그가 역사에 실제로 계셨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3:6 참조; 교성 45:51-53 참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타나시는 모습이 전세계에 영향을 미쳐 장엄하게 될 재림으로 알려진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때 다시 오시는 특정한 장소가 어느 도시 또는 어느 지점이 될 것이냐에 관해 조금이라도 참고할 만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복천년 통치를 맞아들이기 시작하고, 사탄이 북이고, 사악한 자는 멸망되고, 의인의 부활과 예능성의 귀환 등과 같은 사건의 장엄함에 큰 두려움을 느껴 왔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기록자의 마음속의 위치에 대한 우선 순위를 잡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좋은 뜻에서 주님의 오심은 옛 에루살렘이나 신대륙의 새로운 에루살렘에 있게 되리라고도 하고 그 두 도시가 복천년 통치 기간 동안 수도가 될 것이므로, 두 곳에 동시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합니다. 복천년 시기 동안 구세주께서 어떻게 움직이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에언자 요셉 스미스의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부활한 성도들이 천년 동안 지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지상에 있지 않고, 그들의 형편에 따라 또는 다스릴 필요가 있을 때 방문할 것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

# 그렇게 가깝고도 먼 자폐증 아들과의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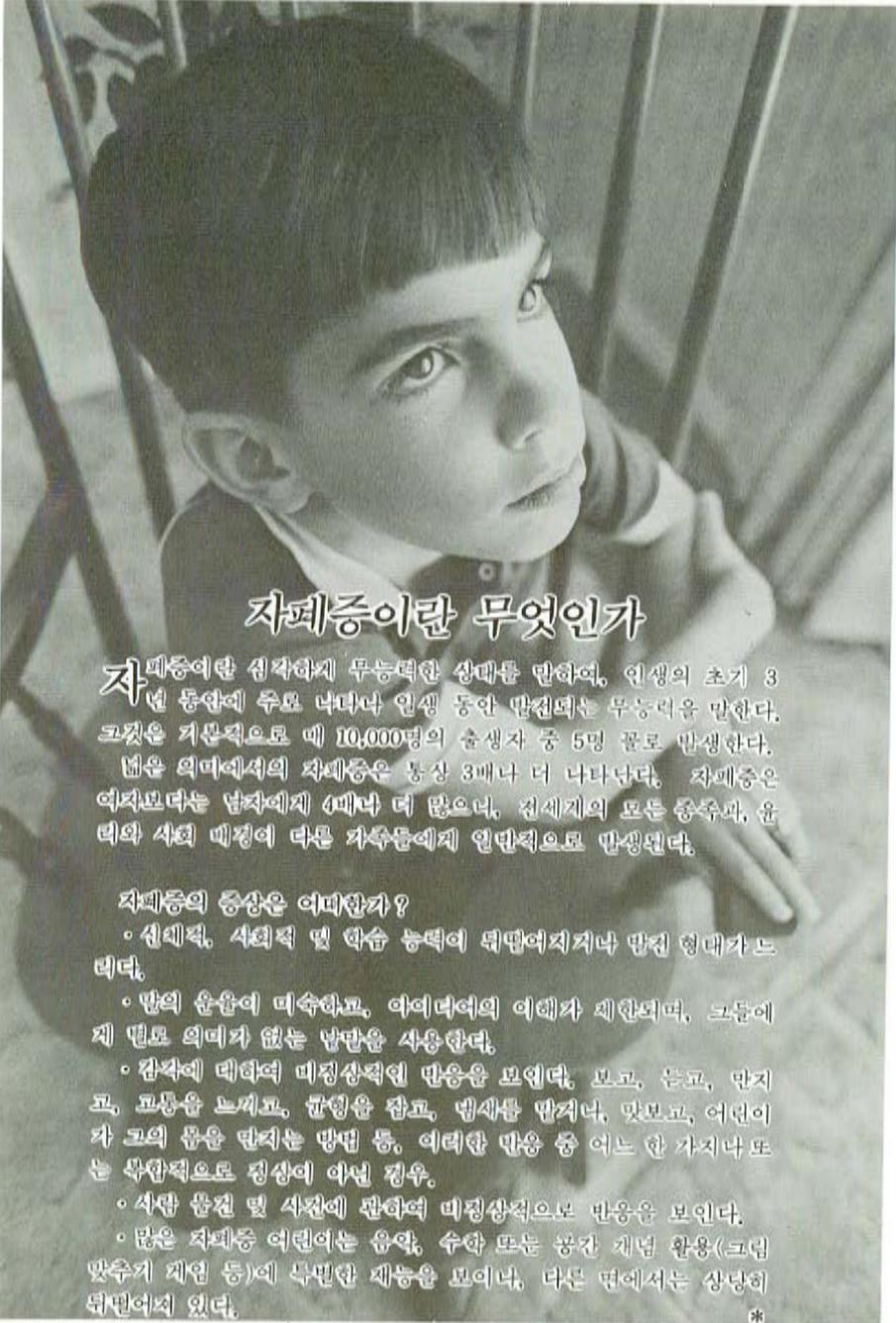
칼멘 비 핑그리

몇 시간이고 그는 그곳에 앉아 몸을 흔들고 있다. 그는 다름 아닌 우리 아들, 예쁘게 생긴 세 살배기 이방인 같은 우리 아들이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그의 균형잡힌 몸매와 티없는 얼굴을 비추고 있다. 형과 누나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옆에서 뛰논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곳을 응시한 채 울동적으로 몸을 흔드는 것에 완전히 몰두해 있다. 그를 알아 보려 하거나 그의 세계에 함께 들어가 보고자 되풀이해서 시도해 보지만 냉정하게 거부될 뿐이다. 밤이 되어 우리가 그를 침대에 눕히고, 껏나일 키스를 시도하지만 그는 밀어 버린다. 위층 침실에서 반쯤 잠이 든채, 우리는 그의 작은 손으로 메깍메깍 전기 스위치를 껏다 끄는 소리를 듣게 된다. 금방 아침이 되지만, 그는 우리를 부르거나 우리들과 대면하려 시도하는 일이 없다. 우리가 그에게 옷을 입혀 주면 다시 똑같은 주기가 되풀이된다. 영

국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이 “그는 그렇게도 가까이 그러나 것처럼 멀리 있네.”라고 읊은 시귀는 우리 아들, 브라이언을 알지도 못했으면서 꼭 그를 두고 한 이야기 같다.

우리는 우리 아기 브라이언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괴팍한 행동 때문에 점점 불안해지게 되었다. 그가 어떤 면에서는 티없이 밝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으며, 그러면서도 그의 진실을 간파할 수가 없었다. 그의 신체적, 사회적, 지적 발달은 매우 불규칙했다. 브라이언은 찬송가 “낮의 빛이 말없이”를 단 한 번 듣고 난 뒤에 완전하게 그 찬송가를 콧노래로 부를 수 있었으나, 그는 우유 한 잔도 달라는 소리를 하지 못했다. 자물쇠를 잠그고 여는 것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 할 수 있으면서도, 포크를 사용하는 데는 애를 먹었다.

우리는 또한 감각에 대한 브라이언의



## 자폐증이란 무엇인가

**자**폐증이란 심각하지 무능적인 상태를 말하며, 인생의 초기 3년 동안에 주로 나타나 인생 동안 발전되는 무능력을 말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매 10,000명의 출생자 중 5명 꼴로 발생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자폐증은 통상 3배나 더 나타난다. 자폐증은 여지보다는 남자에게 4배나 더 많으며, 전세기의 모든 문화와 윤리와 사회 배경이 다른 가족들에게 일관적으로 발생된다.

### 자폐증의 증상은 어떠한가?

- 신체적, 사회적 및 학습 능력이 뒤떨어지거나 망진 형태가 드러난다.
- 말의 윤율이 미숙하고, 아이디어의 이해가 제한되며, 그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낱말을 사용한다.
- 감각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 뜨겁고, 차고, 만지고, 고통을 느끼고, 혐오를 잡고, 냄새를 맡거나, 맛보고, 여인이자 그의 몸을 만지는 방법 등, 이러한 반응 중 어느 한 가지나 또는 복합적으로 징상이 아닐 경우.
- 사람 물건 및 사물에 관하여 비정상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 많은 자폐증 어린이는 음악, 수학 또는 공간 개념 활용(크림 맞추기 게임 등)에 특이한 재능을 보이나, 다른 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

반응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때는 그는 냄새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또 어떤 때에는 먼저 냄새를 맡아 보지 않고는 어떤 음식도 맛을 보려 하지 않았다. 때로는 남비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갑작스런 큰 소리에는 무감각 하다가도, 어떤 때는 열방에서 아버지가 알사탕 껌질을 까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브라이언은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도 아무런 내색을 보이지 않지만, 내가 손으로 그를 만지면 불에 데기라도 한 듯 몸을 바짝 오그리고는 했다. 내가 그를 위안시켜 주고자 하는 것을 그가 허락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나는 심한 좌절감을 느끼곤 했다. 그것은 내가 그에게 다만 고통만을 더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브라이언이 말을 배우는 속도가 계속 비정상적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의 걱정은 심각해졌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말을 하면 로보트와 흡사한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흉내낼 뿐 자신의 생각은 거의 표현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낱말은 의미없는 소리의 집합체였을 뿐이다.

가족에게 가장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일은 브라이언이 가족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이었을 것이다. 그는 가족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고, 형제 자매의 따스한 손길도 외면했으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 브라이언은 기계 장치를 망그트리거나, 책을 찢거나, 집안에 둔 조그만 수족관에 작은 물건을 떨어뜨려 끊임없이 가족들을 괴롭혔다. 우리가 안전상 감추어 두는 스크류드라이버가 혹시 그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그것을 열 배출구, 문 경첩 및 전기 콘센트 구멍에 넣고는 했다. 어느 날 그는 수리

공의 스크류드라이버를 가지고 집에서 나와 그 수리공이 미처 접시 닦는 기계의 수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의 트럭에서 미등과 백 밀러를 떼어 낸 일도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망쳐 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안에 있는 문을 모두 잠켜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거리에 나가 자동차로 뛰어 드는 것을 막기 위해 바깥문에 또 하나의 자물쇠를 설치해야 했다. 전혀 위험을 감지할 수 없었으므로, 차가 달려오다가 그를 치지 않기 위해 급정거를 해도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때로 그는 높은 것에 넋을 빼앗길 때도 있어, 그가 이층 창 문턱에서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다. 것처럼 끔찍한 경험을 매일 되풀이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치고 정서적으로 매마르게 되었다.

지나간 일을 훑어 보니, 의술의 도움을 좀더 일찍 받았어야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예쁘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어린 아기의 성장이 좀 늦어진다 하여 그 문제점을 분명하게 알아 내기란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는 안아 달라고 전혀 보채는 일이 없는 "행복한" 아기와 같이 보였다.

그 뒤에 그의 행동에 나타난 문제점은 2세 어린 아이에게 정상적인 행위인 "곤란한 이중성"이 과도하게 나타난 경우로 해석되었다. 말하는 것이 늦은 것은 미숙아로 태어난 것과 비명의 형과 누나들이 브라이언을 위해서 모든 말을 해주듯으로 물렸고, 그가 다른 사람과 사회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능력은 우리 가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면"으로 제쳐놓았다.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면 그는 그의 문제를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드디어, 브라이언이 만 세 살이 되었

고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우리는 의술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우리는 진단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문가를 찾아 다녔다. 우리의 브라이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학대받았다.” 또는 단순히 “아주 불행한 어린 소년”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우리는 참으로 그를 사랑하고 필사적으로 우리 아들을 돕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은 우리에게서는 그야말로 눈알을 캄캄하게 하는 것들이었다. 다른 곳에서 “정신적 지진아” “경미한 뇌 손상”, “신경계의 부적합한 발달” 등은 털 놀라운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어느 것도 제대로 맞는 것 같지 않았으며, 그의 행위를 바꾸어 주기 위해 아무도 어떤 구체적인 제언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자폐성 성향”이라는 말이 언급된 것을 듣고는 신문에서 읽은 1일 자폐성 워크숍에 자포 자기한 심정으로 참석했다. 위안과 낙담이 뒤섞인 마음에서, 우리는 브라이언이 자폐증의 특성과 증세에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다. 우리는 자폐증 환자는 일생의 발달이 무능력하게 되어 그 환자의 95퍼센트가 특별한 보호 기관에 수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제한된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게 되자 브라이언을 선교 사업에 보내고 결혼을 시키려는 꿈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이러한 정보는 대단한 실망을 안겨 주었지만, 마침내 그의 투병의 모습을 확인한 후로는 다소 안심이 되었다. 우리가 당하는 처지를 영문도 모른 채 의롭게 느끼고 있던 우리는, 자폐성 자녀를 둔 다른 부모들과 모임을 갖고 그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큰 위안을 얻었다.

우리가 겪은 사건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진정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혼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들 부모들은 우리에게 자가 치료법을 들려주고, 안내 책자나 자폐증에 권위있는 의사의 이름이나 브라이언과 같은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마련된 단체의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모들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단 자폐증 자녀를 둔 다른 부모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정상적이라는 결론을 곧 얻게 되었다. 그들의 좌절감과 두려움과 희망을 표현한 이들 새로운 친구들도 우리들과 상당히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다. 더구나, 그들은 지적이고 동성집도 있었으며, 온건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것은 브라이언의 상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원망하고자 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던 죄책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자폐증 환자에 대해서는 특효 치료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자폐증 어린이의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될 행위요법이 있다는 기사를 읽고 힘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는 브라이언을 우리 거주 지역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몇 년을 기다려야 비로서 입학이 가능하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남편과 나는 우리 스스로의 훈련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 집에서 프로그램을 세워 실시하기로 결심했다.

이해심 많은 감독님은 기도로 결정하

나의 간절한 상호부조회 회장직에서의 해임 요청을 들어주어 내가 온 정성을 이 일에 쏟을 수 있게 해주었다.

참을성있는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보아 주는 동안, 나는 치료 훈련을 쌓기 위하여 자폐증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자원 봉사를 했다. 우리 집을 개축하려던 계획도 중단시키고, 새 가구를 구입할 돈은 브라이언의 자가 치료를 도와 줄 두 명의 임상 의사를 고용하는 데 쓰여졌다. 우리 세 사람은 교대로 일했으며, 아버지와 다른 아이들도 참여시킬 수가 있었다.

브라이언이 관심을 보이는 단계를 배울 때, 우리는 그가 진보해 나가는 것에 놀랐으며, 한번에 조금씩 그러나 힘들어 얻은 성공을 자축했다. 이 자가 치료법은 우리가 브라이언과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 할 수 있었으므로 당장 얼마 동안은 훌륭하게 진척되었다. 그러나, 브라이언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다보니 다른 자녀들은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또한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는 브라이언이 자폐성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했으나, 우리가 집에서 그와 함께 하는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열렬한 희망은 미래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으며, "식용성"이 구호처럼 되었다. 지금 그를 위해 행해지는 수업이나 기술 방법은 다음달이나 다음해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브라이언은 심매의 시기를 극히 힘들게 보내겠지만, 그는 그의 형제나 자매들처럼 결코 "정상적"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잠재 능력을 키워 나갈 것이며, 우리는 그의 진보의 보상을 함께 나누게 된다.

나는 불구 어린이를 대하는 방법에 대

하여 모든 답을 다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1. 사실을 받아들임. 문제가 존재함을 부정하는 시기와 일단 문제를 시인하고 나서 슬퍼하는 시기를 거치게 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되어야 했는가 하고 한탄하는 눈물을 거두고 그 아이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빨리 강구하면 할수록, 우리 생활의 균형이 바로 잡히는 시간이 더 빨라진다. 인간의 삶에서 아무런 시련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우리의 시련이 다른 사람들의 경우보다 좀더 잘 들어날 뿐이다. 자기 연민은 어린이를 돕는 데 필요한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할 뿐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참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2.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자폐증이란 생리적인 부조이며 가족이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든 불구 자녀를 두게 되는 것은 범법에 대한 형벌로 인한 것은 아니다. 다른 식구들에게 이점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3. 자녀를 위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본다. 그 자녀가 진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전체 견해는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의 장점과 약점이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체계화된 환경을 찾아본다. 부정적인 행위를 줄이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 계획해 낸 한 가지씩

자폐증 환자는  
일생의 발달이 무능력하게 되어  
그 환자의 95퍼센트가  
특별히 보호 기관에  
수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의 행태 모범이 중요하다. 일단 이러한 프로그램을 찾게 되면, 집에서 꾸준히 수행하도록 한다. 교실에도 참여하여 일하고 자주 방문하여 가능하다면 부모가 교육 팀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

4. 지역 단위의 부모 모임에 참여하거나 조직한다. 다른 부모와 친선적인 전문가들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어 준다.

5. 자폐성 어린이(또는 다른 문제가 있는 어린이)를 위한 사회 활동에 활동적으로 참여한다. 교회 활동에서 익힌 여러분의 지도 능력과 조직적인 솜씨는 지역 사회에서 얼마든지 환영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중요한 헌신을 할 능력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비회원과 함께 일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도 여러분의 생활에 축복이 될 것이다.

6. 모든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마련해 준다. 가족 토론은 가족 스스로의 감정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 또한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동정심과 일체감을 갖도록 돕는다. 그러한 어린이들은 연령이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

여할 수 있다. 가족내의 다른 자녀들이 자폐성 자녀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마련해 주어 이들이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게 한다.

7. 여러분 자신을 돌보도록 한다. 부모로서, 여러분은 가족의 복지에 열쇠가 된다.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받도록 한다. 자폐증 자녀는 결혼 문제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갖게 되므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조부모님에게 알리고 참여시킨다. 조부모님들은 그 자녀와 부모에게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은 또한 대단한 힘이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다.

9.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신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에 관하여 감독과 토론한다. 와드 회원들과 함께 여러분의 처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그들이 이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이 먼저 질문을 열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하지나 않을까를 두려워하여 어떤 일을 하거나 말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한다! 헌신적인 가정 복음 교사 또는 여러분의 자녀를 맡아 가르치는 특별한 사람들이 가족 모두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10.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한 시련을 경험하는 일이 비록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기록하신 분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은 우리가 깊은 실망의 늪 속에 있을 때 위안을 줄 수 있고, 불운한 때에 특별한 방향을 제시해 주며,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키워 주기도 한다.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인내심과 평온과 생을 바라보는 안목을 얻게 된다.

11. 어떤 회생을 치루게 되든지, 항상 유머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의 신체적 에너지가 완전히 소모되고,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 그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유머 감각뿐일 것이다.

브라이언의 애쓰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은 자폐증의 성격을 띠고 있고, 우리 자신의 생활의 어떤 면에서든 불구가 되어 있어, 흔히 영의 영향을 무시하기도 하고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임무에서도 흔들리는 수가 많다. 브라이언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거의 끝없는 시련이 뒤따른 것처럼 보였듯이, 우리를 자신의 경우도 그와 흡사할 것이므로, 경건이나 우리 지도자들에게서 끊임없는 권고를 받아들여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좀더 구세주와 같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좀더 인내해야 할 필요성은 우리가 고통스럽게 접진적으로 진보해 나가는 것을 지켜 보기 위해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무한한 인내심을 생각해 볼 때 쉽게 충족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우리 역시 자주 “그렇게도 가깝고도 먼” 상태로 보이는 것이다. \*

##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도울까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전미 자폐증 아동 및 성인 협회에서, 렉스 디피네가 장로는 지도자와 교사들에게 자폐증 자녀를 둔 부모들을 돕도록 촉구했다. 칠십일 제일 정원회의 디피네가 장로는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회원들을 위한 교회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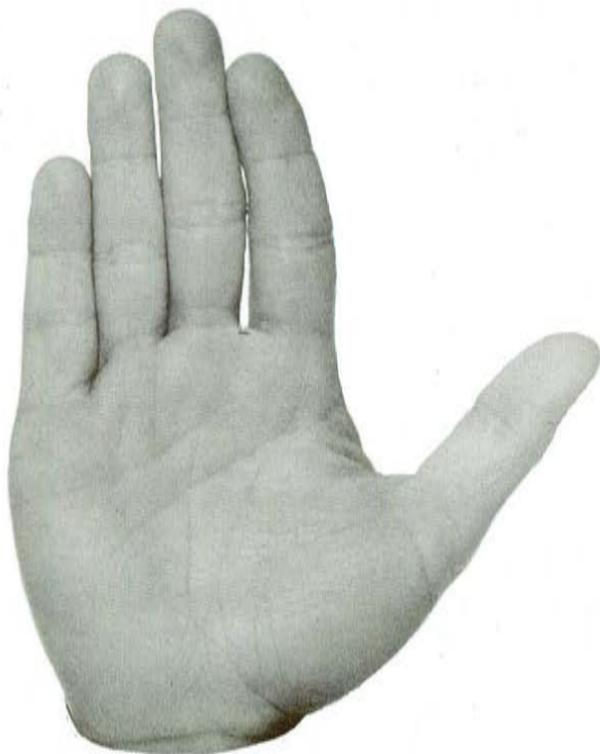
그는 지도자들이 우선 자녀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기 훨씬 전에 문제점을 발견하여 충격을 받게 되는 부모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둘째로, 부모들에게 그들 자녀의 불운한 처지를 비난하지 않도록 재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는 그들 자녀가 그러한 상태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과 그들 자녀도 이 지상에 오기 전에 그러했듯이 영생을 얻기 위한 모든 기회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피네가 장로는 불구의 본질에 상관없이 불구 회원이 있는 가족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와드 및 스테이크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고 지도자와 부모들을 상기시켰다. “만일 활동 계획에 불구 회원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손질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기꺼이 그들에게 손질을 내밀어 그들을 우리 생활에 포함되게 해야 합니다.” 하고 그는 덧붙여 말하였다.

일곱 명의 자녀의 어머니인 칼멘 비 핑그리 자매는 유타 자폐증 어린이 협회의 회장(자원 봉사)이며, 솔트레이크시티 와드에서 청년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 우리는 정직해야 함을 믿는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아**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과제가 되는 한편 기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생활해야 한  
다는 개념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가르  
침으로 키워 나가야 하는 책임을 받아들

이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  
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케 하리라.”(요한복음 8:31-32)

이것은 그것이 기록되었을 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 정직해야 하고 그런 연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나는 신앙개조 제13조가 “우리는 정직……을 믿는다.”로 시작된 것은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세주께서 왜 하이람 스미스를 사랑하셨는가를 나타내는 말씀에 담겨 있는 놀라운 메시지에 대하여 나는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다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의 종 하이람 스미스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의 마음이 고결하며 내 앞에서 올바른 것을 사랑하므로 저를 사랑하는 연고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교성 124:15)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것처럼 말씀하시도록 하려면 우리들은 자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주 앞에 올바른 것을 가장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습니까? 완전한 정직을 가르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제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뜻하는 바를 좀더 완전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히 정직하게 되고, 참으로 고결하게 되기로 결심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스스로 값싸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스스로 큰 자부심을 갖도록 하십시오. 자존심을 개발하고 마음의 평정을 구하고 인격을 가르며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일상의 행동에서 정직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언

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으며 여러분을 본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생활에서 정직하게 살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진실하며 행동으로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부심과 인내심과 실천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말없이 여러분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범을 헤아려 그들 역시 그 빛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정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한 일과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보여 주는 모범으로 인해 고양되고 인도받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한 성찬식에서 말씀한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감독단의 일원인 사회자는 그날 저녁의 연사로 나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상시와는 달리 좀 길게 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에쉬튼 장로님은 내가 그분과 내 자신에 관하여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으시면 틀림없이 실망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전에 한 무리의 죄수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형무소를 떠나서 정상적인 사회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전과자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의 출발점에서 그대로 계속해 앞으로 나가십시오.’ 이곳에 모여 계신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는 유타주 형

우리는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히 정직하게 되고,  
참으로 고결하게 되기로 결심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정직은 곧 삶의 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남에게 내보이는 것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친구나 하는 일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한 단계씩  
성취해 나가는 미덕입니다.





무소에 투옥되어 있었던 전과자입니다. 약 6년 전에, 내가 에쉬튼 장로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사회 사업과의 교회 죄수 프로그램의 책임을 맡고 계셨습니다. 몇 주 후 내가 그분을 잘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분에게 내가 장거리 달리기 선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연례 행사인 솔트레이크시티의 7월 24일 마라톤 경기에서 달려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에쉬튼 장로님은 내게 격려해 주시며 그가 형무소의 간수장에게 말하여 하루 동안 경기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에쉬튼 장로께서 나에게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간수장이 동의했노라고 그분은 후에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쉬튼 장로님은 그 책임을 지셨으며 그분은 나를 믿고 내가 그 대회에 나가 잘 하기를 기대했노라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1971년 7월에 있었던 마라톤 경기를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날씨는 무덥고, 코스는 힘들었으며, 신체 조건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라고는 시간이 날 때 형무소 마당 주위를 달려 본 것 뿐이었습니다. 코스를 반쯤 달렸을 때 나는 완전히 지쳐 버렸습니다. 다리가 쭈시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그만 두고 싶었

습니다. 도저히 계속할 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뒤에 처지려고 했을 때, 머리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에쉬튼 장로님을 실망시켜선 안돼. 그건 나한테 달린 것이야.’ 마라톤 코스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만 둘 수 없어. 에쉬튼 장로께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드려야 한다.’

결국, 나는 코스를 다 뛰었습니다. 처음 25위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나는 약속한 대로, 경기를 마친 뒤에 형무소로 곧 되돌아왔습니다. 에쉬튼 장로님은 내가 완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그의 친구가 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전 인생을 통하여 처음으로 그때 내가 자신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생각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마라톤 경기가 있는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형무소에서 풀려 났습니다. 약 1년 쯤 뒤에 나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몇 개월 뒤에는 에쉬튼 장로님께서 우리를 신진으로 데리고 가셔서 결혼식 주례를 맡아 헌세와 영생을 위해 인봉시켜 주셨습니다. 6년이 지난 오늘 저녁, 나는 여러분의 감독단에서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들의 앞이나 뒤나 옆에 있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유타 국립 형무소를 방문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사귄 가장 좋은 친구 중에는 그곳에서 사귄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갈 때마다 무

엇인가를 배우게 되므로, 그곳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의 자존에 대해서도 배우고, 행위에 대해서도 배우고 사람들에게 대한 것도 배웁니다. 어느 날 나는 형무소에서 간수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 중에서 ‘구제 불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600명 수용 능력의 건물에 800명이 넘는 죄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았으며, 형무소 직원들에게 문제를 일으킨 죄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형무소 마당에서 몇몇 죄수들과 있다가 어떤 사람의 가슴에 “타고난 전과자”라는 문신이 썩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가 그것을 증거해 보이려 하는 것을 본 일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나는 유타 주립 형무소에 있는 모든 죄수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는 구제 불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는 간수장의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 사람에 관해서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죄수는 매일 23시간 40분 동안을 독방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 이상자는 아닙니다. 그는 단지 마음이 강약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조금도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간수장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식사는 죄창살을 통해서 잠방으로 주어 집니다. 그의 방에는 변기와 침상이 있어서, 그는 하루 20분씩 샤워를 하러 나올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감방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다른 죄수들에게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자유를 허락받게 되면

그는 또 같은 짓을 할 것입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인간적 자존심도, 합당한 행위도, 인내심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생활에서 성취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제1인자가 되는 것——구제 불능에서 제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 우리가 자존심이나 행위나 인내심 등의 모든 중요한 미덕에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정직한 사람의 제1인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친지들을 정직하게 대하는 습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나 우리가 접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가장하지 않고, 모든 언행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명예를 건 말을 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좋은 것을 나타냅니다.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인 칼 지 매저(브리감 영 아카데미의 제1대 회장) 박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때때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고 인간적인 관심과 우리가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명예를 건 말”이란 무슨 뜻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한없이 높고, 두껍고, 끝없이 둘러치진 물담으로 된 형무소 담 위에 놓아 두십시오.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루에 나를 세워 놓고 내 주위에 분필로 줄을 그어 놓고 내게 절대로 그곳을 건너지 않겠다고 명예를 건 말을 하게 했다고 합시다. 내가 그 원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



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는 특별히 이 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구도 속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답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지니고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우리 친구들은 정직하게 대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째,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옛말에 “정직한 하루의 일”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찍 직장에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와 같이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나쁜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질적인 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한 가지 나쁜 태도는 때때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것을 우리 인생의 극히 작은 부분 동안만 고용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여름 동안이거나, 학교에 다닐 돈을 벌 때까지만 또는 좀더 좋은 직장이 나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등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빛을 갠기 위해서나 아들이 선교 사업을 하

는 동안 돕기 위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직장에서 하는 일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자체는 나쁜 것이 없지만, 그로 인해 야기 되는 태도는 위험하고 부정직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에서 다음과 같은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여기 있지 않을테니까 이 손님을 친절하고 예의있고, 정직하게 대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일생 동안 여기 있을 것이 아니니까, 아무도 알 수 없을테니 이 일을 끝까지 해낼 필요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태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 위험을 끼치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51편 16-17절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에드워드 패트리지 감독의 요청으로 계시를 받았읍니다. 당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던 성도들은 그들이 서부로 이주해 가는 이 잠정적인 기간 동안 천막에 기거하지 않고 과연 집을 지어 살아야 할 것인가에 의문을 품었읍니다. 이 의문에 주님은 매우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읍니다.

“그리고 나는 저들에게 달리 있을 곳을 마련하여 그곳으로 가라고 명할 때까지 잠시 동안 이 땅을 성별하여 저들에게 주노라.

“그 일자와 시간은 저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여러 해 동안 있을 것으로 여겨 이 땅에서 일하라. 이로써 저들에게 유익이 돌아가리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직책에서든,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이름을 훌륭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제시하셨듯이, 항상 여러 해를 두고 일한

다는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루어 내고자 하는 일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범으로 일하는 미서 정직의 중요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일하는 날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에게나 하루가 긴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정직을 행하고 이루는 데에는 만족감이 따릅니다. 신임을 받고 있는 종업원에게 접근하여 그가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횡령하는 데 도움을 요청한 부정직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업원은 계속해서 거짓하다가 결국은, 100만불을 주겠다고 하자, 그 제의에 굴복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범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범법자는 종업원에게 도와 준 대가로 100불을 주었습니다. 종업원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어조로 종업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범법자로 생각하십니까?” 범죄를 계획했던 사람은 경멸스런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네가 어떤 인물인지 이미 알고 있어. 자, 자네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나 이야기하도록 하세.”

네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활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 주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위기에 처하거나 사람들이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답이 필요한 때는 하나님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 해 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의 부름에 응한다면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계획해야 합니다. 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리가 주님을 우리의 선임 동반자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어린 소년,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되는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1820년 어느 봄날 아침,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가장 정직한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대답을 받았으며, 때가 찬 복음의 경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열 네 살 된 어린 소년의 순진하고 온전한 정직성은 현대의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우리 시대에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직은 곧 삶의 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남에게 내보이는 것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친구나 하는 일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한 단계씩 성취해 나가는 미덕입니다. 그것은 정직해야 하는 의무의 소명을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해지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

# 그도 중요한 한 사람

프랭크 더 메이

그는 다소 경계의 빛을 띤 채, 세미나리 교실로 들어섰다. 글썄, 조금은 공격적인 태도랄까. 아물든 심기가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는 학교 만 아이들이 대부분 세미나리에 왔기 때문에 따라오기는 왔으나, 그는 혼자 왔다.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아무도 그와 함께 걸지도 않았다. 그는 거의 친구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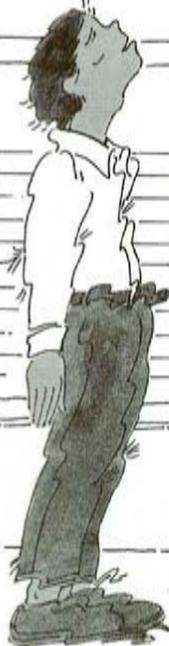
어린 나이의 그에게 인생은 그야말로 처참한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돈에 취해 싸우다가 죽음을 당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자녀들을 교회나 학교에 보내는 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 어머니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정 보조금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돈은 자기 자신과 남자 친구들이 마실 술을 사는 데 써 버렸다. 가족으로 두 아이가 더 있었다. 세 자녀는 아버지가 모두 달랐다.

그 집안에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본 생활 필수품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았다. 소년에게는 추운 겨울날에 그를 따뜻하게 해줄 옷이 스웨터 하나뿐이었다. 그는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스웨터를 벗어 들곤 했는데, 그것은 스웨터에 큰 구멍이 나서 다른 학생들에게 그것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양말이 없기 때문에 양말을 신지 못하였다. 집안에는 찬물밖에 나오지 않고 비누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손은 거칠고 여기저기 터져 있었다. 이 소년은 허약했고, 도무지 그에게서는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음식물도 충분하지 않은데다가, 그나마 영양가도 하나 없는 것만 먹을 뿐이었다. 그는 마을 한쪽 구석진 곳의 더러운 곳에 살았으며, 혹 마을의 다른 곳을 가 보려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만이 처음 시작되던 날, 나는 그를 알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시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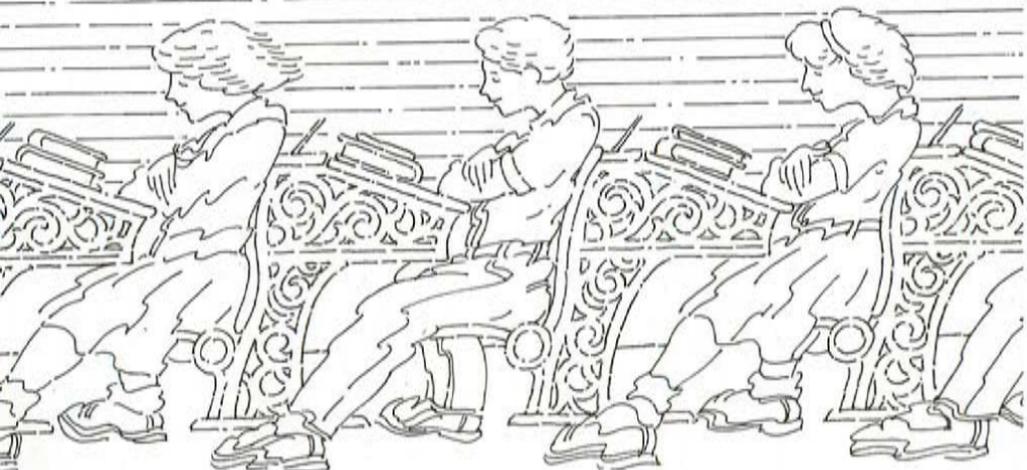
줄에 앉게 했다. 그는 순순히 그렇게 했으나 편안해 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와 친해 보려고 했으나 쉽지가 않았다. 그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세미나리가 시작된 수주일 후에 나는 그에게 기도를 해주겠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재빨리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후에 그가 그 밤에 처음 들어온 날까지 한번도 기도하는 것을 들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교회에 가 본 적도 없었고 신권을 받아 본 적도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 기꺼이 말도 하고 웃기도 하며 친구들을 사귀려고도 하였다.

성탄절을 한 달쯤 앞두고, 어느 대학생이 반원들에게 함께 시간을 내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를 토론하자고 제의했다. 그날 그 학생은 결석을 하여 자리에 없었다. 그 여학생은, 학생들 앞에 서서

간단히 설명을 했다. "우리는 그를 다정하게 대해 주지 않고, 그와 함께 말을 나누거나 걸지도 않으며, 함께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그 학생도 역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들은 그에게 다정하게 대해 줄 수 있고 마땅히 그해야 하며 그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이해하도록 도와 주어, 그들과 그 자신에 대해 중요성을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은 모두 동의하고 그녀가 권고하는 대로 따르기로 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들이 각자 조금씩 돈을 내어 성탄절에 그에게 외무를 사 주자고 했다. 그들은 이 제안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누가 설득하거나 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훌륭하게 일을 해냈다. 그의 눈빛에서, 그의 걸음거리와 웃음 면 얼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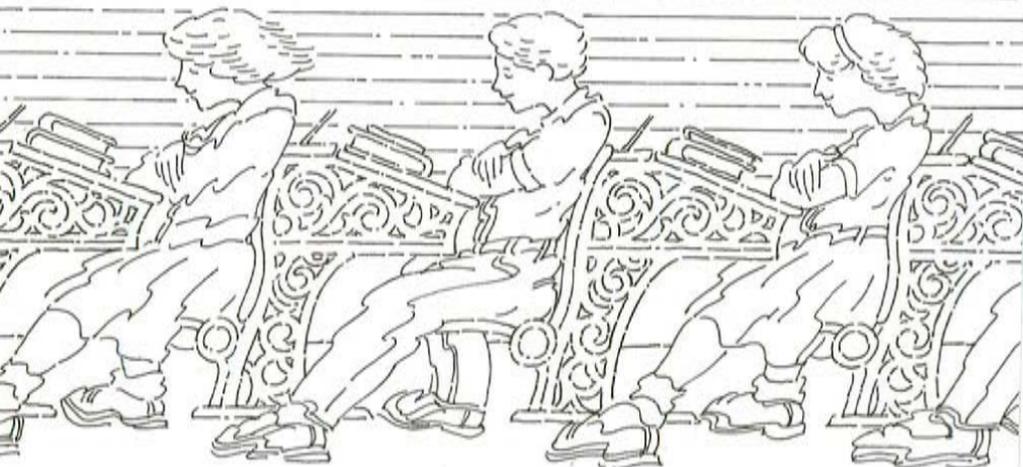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두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는 걸음걸이도 조금 당당해졌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웃음지으며 다정한 인사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내 책상 위에 “선생님이 오늘 기도할 사람을 찾지 못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글 밑에 그의 이름을 서명한 쪽지가 놓여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무도 기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나는 그를 불렀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팔짱을 끼지 않고 머리도 숙이지 않았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하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손을 옆으로 내린 채 천장을 올려다 보며,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아멘”이라고 한 것이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것은

그에게나 모든 반원들에게 훌륭한 기도였다. 성탄절 방학이 되기 2,3일 전에 그를 돕자는 계획을 제안한 여학생이 아름답게 포장한 성탄절 선물 꾸러미를 반으로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시간을 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녀는 일어나서 전에 자신이 제안했던 것을 모두 기꺼이 친절하게 응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각 개인은 그들의 생활 수준이나 가정 환경, 배우는 능력 또는 그들의 인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잠시 말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처음에 조금 의아해 하던 남학생은 그 여학생이 자신을 새로운 경험의 세계로 열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얼마 후에,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자기 옆에 서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



이 얼마나 그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가 얼마나 반원들에게 귀중한 존재인가를 말해 주었다. 그녀는 그들은 모두 그를 고맙게 여기고 그가 그들의 친구인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게 되었고, 나와 모든 반원들도 그러했다. 그녀는 그의 팔에 선물 꾸러미를 안겨 주었으며, 그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일, 이분쯤 지난 뒤에, 반에서 다른 남학생이 "선물 꾸러미를 풀어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야." 하고 말했다.

차근 차근히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는 꾸러미를 푸르고 맛있는 자켓을 들어 올렸다. 그는 계속 벅찬 감정을 누르지 못했으며, 반원들도 그러했다. 조금 있다가, 앞서 말한 그 소년이 다시 말했다. "지퍼를 내리고 한 번 열어 봐." 그는 지퍼를 열고 천천히 팔을 소매

에 끼어, 자켓을 입어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행복한 미소를 띠었다. 그는 5월 마지막 주일까지 매일 그 옷을 입었다.

전에는 한번도 있어 보지도 않던 일이 그의 생활에 일어났던 것이다. 누구인가가 그에게 어떤 것을 주었으며, 그 선물에도 그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는 후에 자기는 14년 동안 성탄절 선물을 꼭 한 번 받아 보았는데 그것은 꿀 한 개였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남학생의 생활은 변화했다. 그는 학교 공부를 기쁘게 하게 되었고, 많은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다른 학생들도 그를 좋아했으며, 그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다면, 그것은 한 인간의 가치를 인식할 여학생이 기적을 이룬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적은 계속되었다. 이 남학생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신전에서 결혼했으며, 지금은 예쁜 두 자녀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와 아버지가 다른 자매도 역시 신전에서 결혼을 했다. 그녀와 그녀의 훌륭한 남편은 모두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으로 살고 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 세째도 역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대학을 마쳤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녀 역시 자기 아들의 가치를 인식하여 가까이 자신의 감정을 알려 주었던 그 여학생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밤 감사드리고 있다고 말한다. 두번째로, 그녀는 회개와 용서의 위대한 원리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있다. 세번째로는 교회의 회원이 된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가족이 변화하도록 도와 준 사랑이 많으신 구세주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





# 의의 병기

빛나는 칼인가 보잘것없는 단도인가?

칼로스 이 애시 장로  
70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내가 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 소년이  
있을 때, 영국의 전설적인 아더왕  
과 원탁의 기사 이야기를 정말 실감나도  
록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신 여자 선생  
님이 한 분 계셨다. 그 선생님 덕분에 나는  
원탁의 기사 이야기에 온통 사로잡혀,  
기사 놀이를 하였고 내가 기사가 된 꿈까  
지 꾸곤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영국의 푸른 전원 지  
방에서 하얀 기사복을 입고 백마를 타고  
가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숲의 가장자리에서 검은색

투구와 갑옷 차림을 하고 흑마를 탄 기사  
가 나타났다. 우리는 주의깊게 서로를  
살피고 나서 창을 꼬나잡고 진속력으로  
서로에게 부딪혀 들어갔다. 창이 서로의  
목표를 찔러 우리 두 사람은 말에서 떨어  
졌다.

나는 곧 두 사람이 칼을 빼고 결국은  
손과 손으로 싸우게 될 것임을 알고 급히  
일어섰다. 나는 적이 번쩍이는 긴 칼을  
빛내며 내게 돌진해 오는 것을 보고 공포  
로 가슴이 죄어들었다. 나는 즉각 손을  
옆으로 뻗쳐 칼집에서 내 무기를 뺐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 : 13)

꿈이 악몽으로 변한 것은 반으로 그 순간이었다. 내 손에 있는 것이라고는 번쩍이는 긴 칼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작은 단도에 불과했다. 나는 깜짝 놀라 구원을 외치며 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다.

그 악몽 같은 일을 경험한 이후, 나는 성도들의 봉사 정신, 특히 젊은 말일성도들의 봉사 정신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봉사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칼집에 있어서, 곧 싸워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꺼이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악한 군대와 싸우는 무기로 우리들을 꺼내실 때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게 될까? 번쩍이는 긴 칼일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단도일까?

#### 기회를 나눔

나는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시지 않으며 인간의 구원을 임의로 보장하시지 않았는가를 의아하게 여길 때가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게 하실 뜻만 있으시다면 그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울리시고, 전세기의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 가입하게 할 그런 설득력있는 강한 힘으로 온 하늘에 그의 메시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분은 필요한 모든 신전을 건립하실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계보 연구도 행하실 수 있으며, 그밖의 모든 일을 혼자서 완벽하게 조금의 낭비도 없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인간의 도움이나 강요없이 간단한 명령만으로도 그런 일을 모두 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키질수록 나는 주님께서 그것을 모두 혼자 힘으로 하셨다고 믿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문제를 그분의 손에 맡기시고, 선교 사업, 신전 사업, 기타 모든 신권 사업을 행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루시퍼가 제안한 것처럼 나의 이전의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침해하게 될 것이며 (모세서 4:1-3 참조) (2) 완벽주의자인 참음성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젓혀 놓고 자신이 모든 일을 도맡아 행함으로써 아들의 성장을 박탈하는 것처럼, 내게서 영적인 경험을 빼앗게 될 것이다. 이것과 복음에 관한 다른 관찰을 통해 나는 정말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자녀들을 그의 일에 참여시켜 그들이 성장하고 배우며 그와 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반대되는 힘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통해 그분의 성스러운 목적을 수행하셨다. 속죄는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 이루어졌고, 또 다른 아들인 아담은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속박에서 구출하였다. 현대의 요셉은 회복의 예언자가 되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모세서 1:39)인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쓰이는 도구나 대행자로 봉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은 성결케 되었고 하나님의 축성을 지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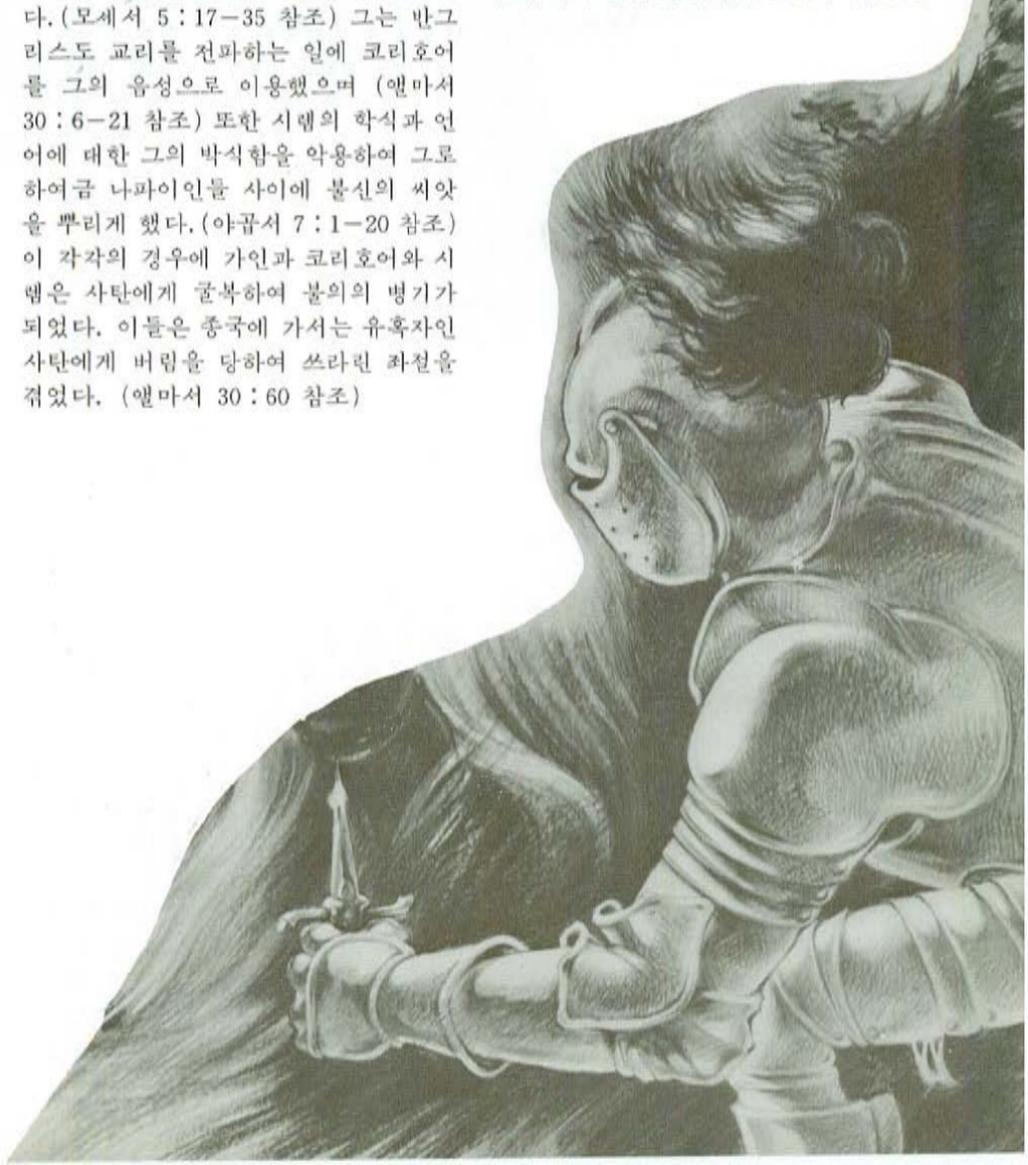
하나님의 다른 아들들은 또 하나의 다른 음성인 반대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쫓겨난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 이것은 "인

간을 미혹케 하며, ... 많은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모세서 4:4) 하려는 루시퍼의 맹세를 성취하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겠으며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하는 자들을 통해 그의 세력을 넓혀 가겠다고 경고했었기 때문이다.

사탄은 가인의 손을 빌어 살인을 했다. (모세서 5:17-35 참조) 그는 반그리스도 교리를 전파하는 일에 코리호어를 그의 음성으로 이용했으며 (엘마서 30:6-21 참조) 또한 시렘의 학식과 언어에 대한 그의 박식함을 악용하여 그로 하여금 나파이인들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뿌리게 했다. (야곱서 7:1-20 참조) 이 각각의 경우에 가인과 코리호어와 시렘은 사탄에게 굴복하여 불의의 병기가 되었다. 이들은 종국에 가서는 유혹자인 사탄에게 버림을 당하여 쓰러진 좌절을 겪었다. (엘마서 30:60 참조)

### 하나님께 자신을 바침

사도 바울은 인간의 영혼을 위한 생과사의 싸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양편-구세주와 그의 성도, 그리고 루시퍼와 그의 군단-의 개종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로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





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로마서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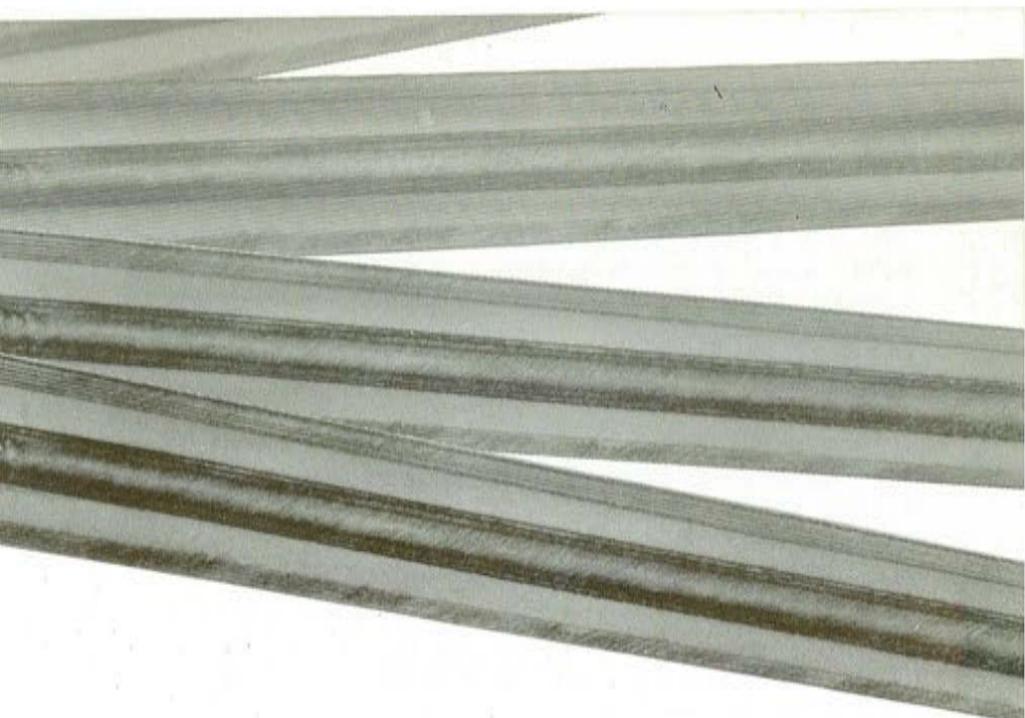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로마서 6:16)

자신을 바친다는 것은 자신을 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다. 여러분은 의의 칼집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꺼이 준비되어 있는가? 엘마와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불순종을 통해 스스로 악의 칼집에 들어갔으며, 어떤 악한 손이 그들을 빼내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방해자가 되게 하였다. 사탄에게 지배된 이 시기를 엘마는 후에 “죄의 사슬” “쓴 잔”

“암담한 심연”이라고 표현하였다. (모사이야서 27:29)

기적적으로 개종한 후에 엘마와 그의 친구들은 칼집을 바꾸었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입은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했으며 평화를 이룩하였다. 물문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같이 저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와 저들의 구속주를 가르쳤으니”(모사이야서 27:36)

사탄의 칼집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씩 진행되어 거의 무해한 피처럼 보인다. 그것은 담배 한 개비, 외설적인 생각과 약간 부도덕한 생각, 한 번의 음주, 사소한 거짓말, 혹은 한 편의 노골적인 외설 영화로 시작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점차로 죄가 증가되고 심각해져 마침내 사탄을 향하게 된다. 하나하나의 범죄를 통해 죄인의 칼의 손잡이는 점점 루시퍼의 손에 적합하게 된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합당한 신앙과 회개와 선행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된 칼집으로 인도한다. 경전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교회에 참석하며 봉사 계획에 참여하며 매일 정직하게 기도하는 젊은이는 의로운 봉사를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다. 기꺼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병기의 칼의 손잡이처럼 미덕을 통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손도 그것처럼 형성된다.

빛나는 칼인가 보잘것없는 단도인가?

이제 두번째 문제: 주님께서 전쟁에서 싸우시기 위해 여러분을 꺼내실 때 그분의 손에는 번쩍이는 긴 칼이 들려 있게 될까? 내가 전투에 대비 중인 기사라면 거래할 때 매우 세심하게 물건을 택할 것이며, 강하고 날카로우며 번쩍이는 칼이 물품 목록의 맨 첫번째에 있게 될 것이

다. 나는 완전하게 균형잡히 있고 날카롭게 날이 선 칼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최고급 강철로 마치 내 팔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 손에 꼭 맞는 것일 것이다. 나는 별로 확신할 수 없는 작고 쓸데없는 무기에 의해 방해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길고 번쩍거리는 칼은 빛과 힘을 발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가슴에는 확신을 주고 목표물의 심장은 공포로 떨게 할 것이다.

#### 강하고 날카롭고 깨끗함

초기 예루살렘의 관찰자들에게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궁 근처에서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할 때 그가 작고 보잘것없는 무기로 보였을 것이다. (마태복음 26:69-75 참조) 그러나 베드로는 개심하여 오순절날 유대인 앞에 서서 확신과 번쩍이는 칼의 위력을 가지고 간증을 전했으며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다. 이

날 그는 3000명의 영혼을 구하였다. (사도행전 2장 참조)

#### 베드로의 담대함

베드로의 담대함이 아무런 노력없이 자동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베드로도 시련과 유혹의 영향권에 놓였으며 “정련자의 불”이라고 불리는 그밖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반대 세력의 불길이가 그를 집어삼키지는 못했다. 그것은 오직 불순한 것과 악점을 불태우고 정련된 순수한 철을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그는 고통의 용광로에서 의로움의 세련된 강한 칼이 되어 나타났다. 강철처럼 깨끗한 그의 인격은 그의 선교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오순절 다음 날 베드로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간증을 말할 수 있는 믿음없는 마음을 보여 주었다. 한때 그의 말은 그를 죽이려고 꾀하는 자들을 “크게 노하”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5:33 참조)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러한 믿음없는 마음은 많은 연구와 금식과 기도의 결과였다.

주님의 깨끗한 도구를 통해 기적이 행해지고 계시가 받아들여졌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다. (니파이삼서 8:1 참조) 베드로는 영혼이 깨끗하여 천사의 손에 의해 감옥에서 구출되었다. 또한 영혼의 깨끗함으로 인해 그는 병자를 치유하고 도르가를 죽음에서 구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사도행전 9:36-43 참조) 그의 순수성을 통해 그는 시련을 보았고 그것이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였다.

칼의 효력은 그것의 힘과 날카로움과 깨끗함,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손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

지가 아닐까?

#### 기도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도록 노력하며 복음 선교사로 떠날 준비를 갖추고 신전 결혼을 준비하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면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의로움에 대한 그들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자극이 된다. 이들 용감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들이 순종하기로 열거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될 것인즉, 이것은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다. (교성 29:45, 84:38 참조)

나는 교회의 청소년들이 단순히 진리를 방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며 그의 칼집에 들어 있어 곧 꺼내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의로움의 번쩍이는 칼이 되기 위해 강한 인격과 믿음없는 마음과 깨끗한 영혼을 구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행한다면 그분이 암흑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여러분을 내보낸다 해도 아무런 당황함이나 실망이나 악몽은 없을 것이다. \*

## 친구가 친구에게



제넷 피터슨과 친십인 재일 정원회 회장단의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와의 개인 집회에서

### 제넷 피터슨

프랭클린 디 리차즈라는 이름은 “위대한 선교사”이며 50년 이상 사도로서 봉사한 그의 조부의 이름을 따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리티서 피어리는 다섯 살 때 소 베를 이끌고 평원을 횡단하여 유타로 이주하는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그의 외가는 또 다른 훌륭한 선교사—히버 제이 그랜트 대판장의 부친인 제이타이어 에이치 그랜트에 의해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선교사업의 유업과 교회에서의 다른 봉사는 일생 동안 리차즈 장로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랭클린은 어릴 때 류머티스열로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부모에게 그는 아마 열 여덟 살 이상은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그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때 “상당히 오래,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리차즈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보다 축복사에게 언제나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이제 여든 두 살인 그는 그가 축복사가 옳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느낍니다.

프랭클린의 한 형은 아이다호주 다우니에서 농장을 갖고 있었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매해 여름마다 어린 소년을 그 농장으로 보냈습니다. 프랭클린에 의하면 그것은 “일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 우리에게는 오는

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기계가 없었습니다. 곡식을 베고 운반하는 데 요즘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름철에는 농장 일 외에도 프랭클린의 부친은 집에서 그에게 많은 일을 주어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의 책임감을 길러 주기 위해 그의 부친은 닭장에 닭 50마리를 길렀습니다. 프랭클린은 닭에게 모이와 물을 주고 닭장을 깨끗하게 진사하며 달걀을 모아야 했습니다. 달걀은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았으므로, 그는 남은 달걀을 팔아 돈을 모으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리차즈 형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하는 기쁨과 내가 버는 한도 내에서 더 적게 소비하는 것의 가치와 내 자신의 십일조를 바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때에는 십일조를 감독의 창고에다 바쳤습니다. 십일조가 때로는 달걀, 밀, 기타 농장의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1908년에 프랭클린은 불과 여덟 살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해 동안 75달러를 벌어서 7달러 50센트를 십일조로 바쳤습니다. 그는 감독의 창고 영수증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75달러라는 액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프랭클린이 다닌 고등학교는 위버 아카데미라는 교회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 위원회 의장은 후에 교회 대관장이 된 데 이비드 오 맥케이였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후 프랭클린은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있는 미합중국 해군 사관 학교로 진학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해도 그 결정을 약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

다.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리차즈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신 권고를 따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교성 9:8)

“사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교 사업과 내 조부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아나폴리스로 가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연구하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해 본 후에,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내 느낌을 표현하며 그것을 기도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성신은 내게 내 결정이 옳다는 것을 간증해 주었습니다.”

리차즈 장로는 그의 부모와 가족과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와 모범에 의해 영감 받은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나무에 새겨 아름답게 페인트 칠한 “제자리에 있으라”라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내가 소년이었을 때의 스테이크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교회의 부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수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덟 살 때부터 열여덟 살 때까지 그의 모범 아래에서 성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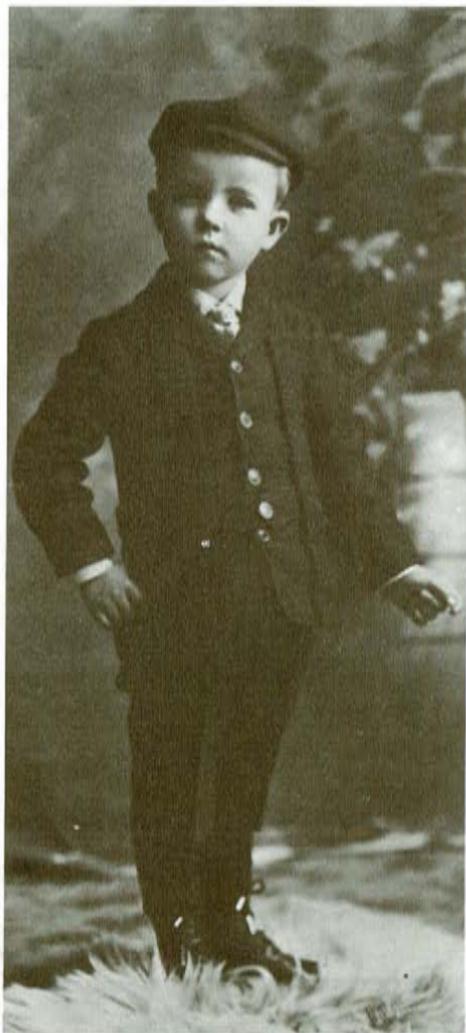
리차즈 장로의 부모는 언행의 모범에 의해 그가 생활해 온 “언제나 교회의 지도자를 따르라” “결코 봉사할 기회를 거

절하지 말라”는 등의 다른 목표를 가르쳤습니다. 리차즈 장로는 이 두 목표 중의 첫번째 것이 “에언자와 다른 총관리 역원만을 순종하고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 지역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번째 목표에 관하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봉사할 기회를 걸

코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일어서서 기도하거나 노래하는 것을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행함으로써 교회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봉사할 기회를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

8세때의 프랭클린의 모습



# 예수님이 돈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로웰 제이 페저

경 원 손질은 힘든 일이었으므로, 그 일을 끝내는 데는 아침 나절이 거의 다 걸렸습니다. 내가 갈퀴를 치우고 나자 아버지는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대로 1불을 주셨습니다.

나는 살구나무 그늘에 앉아 1불짜리 지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지폐에서는 특유한 돈 냄새가 났습니다.

1불짜리의 지폐!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 돈이다! 내가 번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1불을 가지고 있다! 그때 나는 그 돈에 대한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사실 십일조를 바치는 것에 대해 기쁘게 바치려는 기분이 아니었으므로 자신에게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그 대신 나는 내가 그것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은 모두 내 것이라고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내가 십일조를 바치면 나는 90센트밖에 갖지 못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10센트가 없다고 해서 아쉽게 생각하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은 그분의 세상이며, 그분은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을 한결 편

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나에 관한 한, 나는 십일조를 바치는 것에 관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는 풀밭에 누워 피로를 풀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였으므로 나무 그늘 아래 있기에 꼭 알맞았습니다. 나는 흔들리는 나뭇잎을 통해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폐는 아직 내 손에 있었습니다.

나는 사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십일조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90센트만이 실제로 내 돈이며 10센트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아직도 그것에 대해 별로 기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어떻게 받으실까?

이 새로운 생각에 마음이 미치자, 나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내 돈에 대한 십일조를 바치고, 감독님이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 드리는지 보기 위해 감독님을 지켜 보려 했습니다. 나는 일요일 아침을 기다리기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현금 명세서를 기입하여 봉투에 넣는 것을 도와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지만, 나는 내가 그것을 바치는 이유가 온당하지 못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십일조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침내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가 끝난 후 감독님이 그의 방에 계실 때 감독님에게 나의 십일조를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곳이 감독님이 주님께 돈을 드리는 장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독님은 내가 십일조를 바친다는 것에 대해 몹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그

에 대해 나를 축복해 주실거라고 말했습니다.

감독님은 내게 고맙다고 표시한 후에 내 십일조가 들어 있는 봉투를 와드 서기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서기가 내 봉투를 여는 것을 보고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가 내 돈을 주님께 드리나 보지? 나는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감독님이 내게 물었기 때문에 나는 감독님이 나의 당황하는 표정을 보셨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어떻게 받으세요?”라고 나는 여쭙어 보았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정말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한참 웃다가 그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받으시려고 직접 오시는 것은 아니란다. 그 돈은 교회 본부에 보내져서 선교 사업, 신전과 집회소 건립, 계보 사업, 기타 필요한 일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십일조 중의 얼마는 우리 집회소 운영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

감독님은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건물 이곳저곳을 모두 걸어다녔습니다. 감독

님은 여러 곳에서 멈추시고, 교실에 있는 칠판과 같은 것을 가리키고는 저런 것의 비용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의자와 책상, 그밖에도 기물이 많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감독님과 함께 쪽 둘러보니, 집회소를 유지하려면 참으로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은 수리와 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지, 나는 십일조를 바치기 때문에 마치 집회소의 일부가 내 소유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내가 가는 신전이나 다른 집회소도 마찬가지야. 그것은 참 좋은 느낌이지.”

나는 교회에서 집으로 걸어가며 아마 십일조는 유익한 것일꺼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지 못해서 약간 실망했지만, 내가 십일조로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을 돕고 있다는 것에 가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 닥쳐오고 있었고, 내게는 내가 쓸 수 있는 90센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



# 예언자 요나



[경전 이야기, PBIC0358 KO에서 각색 인용]

니느웨 백성들은 매우 사악하였으므로 주님은 그들을 멸할 준비를 하셨지만, 그들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 하였습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나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읍니다. 아마 그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그에게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름으로부터 도망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근처의 항구로 도망한 요나는 배 한 척이 니느웨에서 멀리 떨어진 다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뱃삿을 지불한 후 승선하여 배 밑으로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배가 출발한 후 얼마 가지 아니하여 주

님께서는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짐채 만한 파도가 배를 치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기도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요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선장이 잠자는, 요나를 발견하고는 그를 깨워 야단을 쳤읍니다. “자는 자여 어쩔이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선원들의 두려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누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게 했는지 알아내고자 제비를 뽑기로 하였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니 요나가 나왔읍니다. 그들은 그에게 어디서 온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요나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여, 나는 주님으로부터 달아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폭풍의 원인이었음을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사람들은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지를 향해 노를 저으려고 한 번 더 시도했으나, 여전히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선원들은 그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요나를 배에서 바다로 던졌습니다. 성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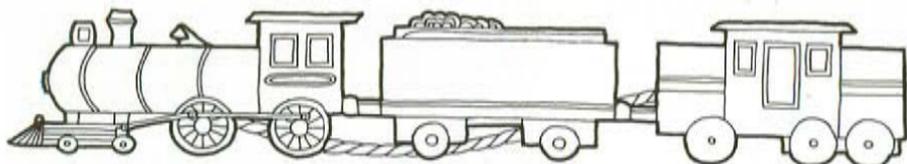
요나가 파도 속으로 사라지자, 주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깊은 물에서 올라와 그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거절했던 일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예언자로 봉사하겠다는 그의 맹세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

자 주님께서는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마른 땅에 토해 놓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 이번에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예언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람들은 화를 내는 대신 요나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왕은 온 땅에 포고문을 내려 금식을 선언하였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매나 양 매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찌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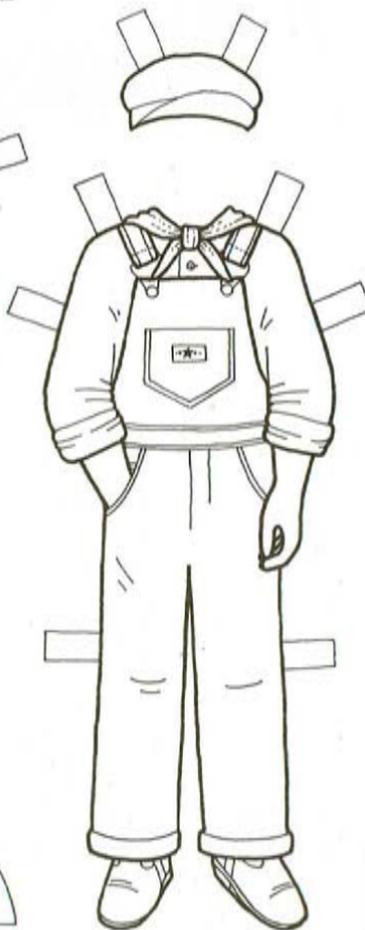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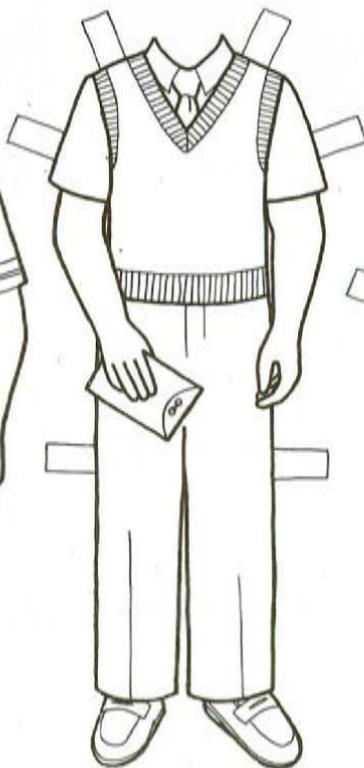
니느웨 백성들은 용서받고자 간절히 기도했으며, 악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회개한 것을 보시고는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마태입니다. 나는 스포츠와 교회 가는 것과 기관사 복장을 입어 보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내 증조 할아버지는 오래 전에 기관사이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론경을 주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읽으시고 교회에 들어오셨으며 가족을 이끌고 유타주로 오셔서 철도 회사에 다니셨습니다. 나는 증조 할아버지의 일지를 읽었습니다.

## 종이 인형

지내 스미스 웨스트호프



## ※ 성장의 십년 ※

1983년 12월이 끝남에 따라, 스펜서 더 블류 김볼 대관장이 재임한지 십 년을 기록하게 된다. 그 기간은 커다란 변화와 활발한 선교 사업 및 무한한 사랑을 보여준 역사적인 십 년이었다.

1973년 12월 30일 일요일에, 그는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성임되고 성별되었다. 그당시 그는 78세이었다. 그후의 십 년은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기간이었다.

1973년 교회 회원의 수는 3,321,556명에서 1983년 말 5,450,000명으로 성장했다.

스태이크의 수도 1973년 630개에서 1983년 말 총 1,431개로 크게 늘었다.

전세계에서 운영되는 신전의 수도 15개에서 현재 25개로 늘어났으며 더 나아가, 16개의 신전 건립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설계되고 건설 단계에 있다.

복음 선교사도 선교 기간이 18개월로 줄

었다할지라도, 17,258명에서 현재 약 27,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부응하여 선교부의 수도 108개에서 180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한 해 개종자의 수도 1973년 79,603명에서 1983년에는 191,013명으로 추정된다.

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이런 통계들은 지난 십 년의 기간이 얼마나 극적이었는가를 보여 주는 한 부분일 따름이다. 1975년에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역사적인 재조적이 있었으며 1976년 교리와 성약에 2가지의 제시가 첨가되고 1978년에는 신권이 훌륭한 모든 형제들에게 유용



무한한 구세주의 비뢰안에 서 있는 김볼 대관장

하게 행사되기 위한 제시가 있었다.

교회 역사중 이 기간에 대해 대관장단의 제2보좌인,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김볼 대관장님이 재임하신 십 년은 교회가 성장하고, 활동이 증가되며 세계 도처의 교회 회원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시켰다는 점



그의 아내, 동인지인 내조자인 카일리와 함께 있는 김불 대관장

에서 매우 돌보입니다.”

“김불 대관장님이 선교 사업에 큰 역점을 두셔서 크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회복된 복음을 모든 나라, 종족, 국민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교회의 막중한 책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발표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의 견해는 예언적이었습니다. 인종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깨닫듯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의 지도력은, 그 일이 어디에서 행하여지든지간에, 교회 회원들 사이의 증가된 활동에서 나타납니다. 성찬식참석수가 더 높아지며,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이 교회의 발전을 보여 줍니다.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좋은 시설을 설비하기 위해 건축 프로그램의 현저한 확장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김불 대관장님의 사랑

과 주님의 예언자로서 또 교회의 대관장으로로서의 그에 대한 성도들의 사랑은 교회 회원 사이의 두터운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촉매 작용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함은 바로 그의 인간색의 본질이었으며,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말인성도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복음의 정수인 형제애와 서로 관심을 나눔으로써 모든 성도들을 감싸 주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김불 대관장님은 의의 위대한 대변자이며, 영적인 위인이며,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찬 그리스도 같은 분이시며, 온 인류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선교사로 알려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선견자이며, 계시자입니다.”

“김불 대관장님은 교회의 사명 즉 복음

을 전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구속하는 일에 우리의 촛점을 맞추신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 김블 대관장 재임시의 주요한 업적들

1974년

6월 23일

신임 본부 청니 회장단 성별

8월 16~18일

스칸디나비아 지역 대회

10월 3일

신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성별

10월 5일

신임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성별

11월 9일

워싱턴 더 시 신전 헌납

1975년

2월 23일~3월 2일

브라질, 사용파울루 지역 대회

3월 1일

사용파울루 신전 건립 계획 발표

3월 7~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 대회

6월 27일

보조 조직 대회 중단

7월 24일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본부 건물 헌납됨

8월 8~10일

일본, 동경 지역 대회

8월 9일

동경 신전 건립 계획 발표

8월 11~12일

필리핀, 마닐라 지역 대회

8월 13~14일

대만, 대북 및 홍콩 지역 대회

8월 15~17일

한국, 서울 지역 대회

10월 3일

칠십인 제일 정원회 재구성

11월 15일

워싱턴, 시애틀 신전 건립 계획

1976년

2월 15일~3월 2일

남태평양 지역 대회

4월 3일

값진 진주에 2가지 계시 첨가

4월 3일

멕시코시티 신전 건립 계획 발표

6월 18~22일

영국 제도 지역 대회

7월 31일~8월 8일

유럽 지역 대회

10월 1일

정원회 회원이 되는 십이사도 보조들로 칠

십인 제일 정원회 재조직

12월 1일

연차 대회를 2일 동안 개최하며 4월 대회를

더 이상 특별히 4월 6일에 맞추어 개최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정책 발표

1977년

2월 12일~3월 6일

중남미 지역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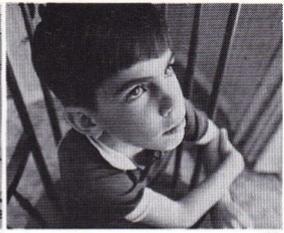
4월 7일

본부 청남 회장단 재조직(본부 청남 회장단은 1974년 6월 23일에 해산되었음)

8월 24일

미래의 교회 사업을 위해 폴란드 땅 헌납(교회 대관장으로 철의 장막을 최초로 방문)

- 10월 2일  
사모아 신전 건립 계획 발표
- 1978년  
2월 3일  
유타주, 조던 리버 신전 건립 계획 발표  
3월 14일  
정해진 와드 및 스테이크 모임 횟수 감소  
3월 31일  
스테이크 대회를 반년마다 개최하며 해마다 한 번은 총관리 역원이 참석하며 또 한 번은 지역 대표가 참석하는 새로운 정책 발표  
4월 22일  
계보 사업에서 종합 기록 초출 프로그램 채택  
6월 9일  
신권이 모든 합당한 형제들에게 유용하게 행사되기 위한 계시가 발표됨  
6월 18일  
하와이 지역 대회  
7월 12일  
신임 본부 청년 회장단 성별  
9월 29일  
성찬식에서 자매도 기도드리도록 승인됨  
9월 30일  
명에 총관리 역원이라는 명칭이 제정됨  
10월 23~24일  
남아프리카 지역 대회  
10월 30일  
브라질, 사옹파울루 신전 헌납  
10월 26~29일, 11월 3~5일  
남미 지역 대회
- 1979년  
2월 18일  
나부시 일리노이 스테이크가 교회의 1,000 번째 스테이크가 되다.  
5월 4일  
일요일 스테이크 대회에서 성찬식을 갖지 않는다는 새로운 정책 발표  
6월 23~24일  
미국과 캐나다의 최초 지역 대회  
11월 24~30일, 12월 1~2일  
남태평양 지역 대회
- 1980년  
3월 2일  
새로운 집회 순서 제정  
4월 2일  
조오지아주 애틀랜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모아,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타히티 및 통가의 신전 건립 계획 발표  
4월 5일  
신임 본부 초동협의회 회장단 성별  
4월 21일  
비회원이 신권회에 참석하도록 승인함  
9월 10일  
일년 단위로 통일된 교회 교과 과정 제정  
10월 8일  
자매 선교사 및 본부 선교사의 연령 및 선교 기간의 변경  
10월 18~23일, 11월 1일  
극동 지역 대회  
10월 27일  
일본, 동경 신전 헌납  
11월 17일  
워싱턴, 시애틀 신전 헌납
- 1981년  
4월 1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텍사스주 달라스, 서독, 과테말라, 남아프리카, 페루, 필리핀, 한국 및 스웨덴의 신전 건립 계획 발표  
7월 23일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대관장단 보좌로



# 성도의 벗 3 차 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판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블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힐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스라 태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톤  
브르스 알 맥클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널 에이 맥스웰

고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렉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언도록 도움.....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판장..... 1

온유와 거짓없는 사랑으로

배우자에게 선교사가 됨.....물리 에이치 소렌슨..... 7

질의 응답 .....13

그렇게 가깝고도 먼

자폐증 아들과의 생활 .....칼멘 핑그리 ..... 15

우리는 정직해야 함을 믿는다.....마빈 제이 애 톰 장로 .....23

그도 중요한 한 사람.....프랭크 디 데이.....30

의의 병기.....칼로스 이 애시 장로.....34

친구가 친구에게 .....41

예수님이 돈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로웰 제이 페쳐 ..... 44

예언자 요나 ..... 44

심심풀이 ..... 44

성장의 십년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판장의 십년간의 업적) .....50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년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년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23호, 제20권 제3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1984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원 편집인: 김 영 철

번 역: 한국 번역 출판부 ☎724-6832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전 수

STOCK NO. PBMA0438KO PRINT IN SEOUL, KOREA 3/84

© 1984년  
제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International magazine